



우리시대 참스승

영중중학교 교장 임 동 숙

인사 · 웃음 · 친절 · 칭찬 통한 학생 생활지도

과목별 우수학생 집중교육으로 인재 발굴 육성

“나의 목상록, 나의 명상록 쓰기를 통해 인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쓰는 방법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오늘 나의 깨달음, 오늘 나의 다짐으로 구분해 작성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포천시 영중면 양문리 소재 영중중학교 임동숙 교장이 그동안 교단에서 실시해온 학생들의 인성교육 방법이다. 임동숙(55·사직) 교장은 서울출생으로 창신초등학교, 청량중학교, 성동기계공업고등학교, 중앙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했다.

임 교장은 1979년 경기도 양평군 지평중학교 역사교사로 첫 취임 후 의정부여자고등학교, 의정부중학교, 영북중학교고등학교, 문신중학교, 탄현중학교, 덕정고등학교에서 교감으로 승진해 남양주시 와부중학교, 의정부시 민락중학교에서 교장으로 승진하여 포천시 영중중학교에 2006년9월1일자로 부임했다.

임 교장은 영중중학교에 부임 후 학생들이 아침등교 후 떠들고 있는 분위기를 바꿔주기 위해 아침독서운동을 전개했다. 매일 아침 20분씩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이 보다 풍부한 독서활동을 위해 조선일보에서 추진한 '스쿨 업그레이드, 학교를 풍요롭게 쉼펜이 홈페이지에 도움을 요청해 YBM사에서 960권의 책을 지난 4월4일에 기증 받기도 했다.

또 교과별 인재발육도를 실시하여 각 교과별로 공부 잘하는 학생 10~15명을 선발후 담당교사들이 규칙적으로 교육하고 지도하고 있다.

경기도포천교육청 생활지도 시범학교로 지정된 영중중학교는 4차(인사, 웃음, 친절, 칭찬)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4차운동의 목적은 학교폭력, 성폭력, 가출, 비행행동 등으로 학생들이 즐겁게 다녀야 할 학교가 다니고 싶지 않은 학교로 변하고 있



는 시점에서 인사, 웃음, 친절, 칭찬이 가득한 학교를 만들어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모두가 다니고 싶어 하는 학교를 만드는 데 있다.

추진방법은 전 교사가 비치된 칭찬카드를 이용해 학생들의 밝고 긍정적인 면을 공경하고 일관성 있게 칭찬하며 적극적으로 학생지도에 임하고 칭찬카드 발급기준을 전 학생들에게 공개하고 교사간 균형의 유지를 위해 과다한 발급을 삼가며 학급담임은 매일 칭찬카드를 분야별(인사, 웃음, 친절, 칭찬)로 모아 학급별 칭찬 카드 통계표를 작성해 칭찬카드 운영 담당교사에게 제출한다.

칭찬카드 운영 담당교사는 매일 각 분야별로 왕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이달의 4대왕 게시판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웃음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박장대소 운동, 웃음지역(스마일존) 운영, 웃음 거울 설치, 웃음 사진전 및 무머대회 개최, 웃음왕 시상식을 개최한다.

특히 웃음 거울은 자신의 모습이 정상으로 보이는 거울 좌우에 자신의 모습이 풍뎡하게 보이는 거울과 자신의 모습이 훌쩍하게 보이는 거울을 설치하여 거울을 볼 때마다 웃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임 교장은 영중중학교에 부임하여 인터넷 수업을 위한 프로젝션 TV를 교체하고 컵 없이 마실 수 있는 정수기를 설치했으며 음악실 이전 확장 및 여자 화장실 개조 공사, 과학실 및 상담실 현대화 사업, 미니 정원 설치, 교무실, 특별실, 복도 등 실내 환경정리 등 교육시설 개선사업을 실시해 면학분위기를 조성했다.

임 교장은 의정부에 근무할 당시 학교평가 위원으로 1년, 남양주시에 2년 등의 경력을 바탕으로 학교교육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 우수한 교육프로그램을 영중중학교에 적용하여 학생들의 실력향상과 생활지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여건과 지역사회 여건이 도심지 학교와 달라 적용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중등교육이 극복해야 할 과제에 대해 임 교장은 “교사들이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있어 체벌교육 등이 엄격히 제한돼 있어 애로사항이 많다”고 지적하고 “교사들에게 책임만 주지 말고 권한도 부여하여 학생들을 바로 지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우수하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영중중학교에 적용되어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임동숙 교장과 교사들의 노력은 물론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합창 영복초 · 포천여중 · 동남고 대상

경기도포천교육청, 제4회 학생예능경연대회 개최

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 최길용)은 5월28일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제4회 포천학생예능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길용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날 세계적인 헬리스트 장한나 역시 어려울 때 학교에서의 재능발견으로 이루어졌다”고 강조하고 “오늘 대회가 우리 학생들의 소질과 재능을 발견하고 발전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는 음악분야의 재능경연대회로 관악합주, 합창, 피아노 독주, 성악독창, 리코더 독주, 관악 독주, 현악독주 등의 종목으로 나눠 실시됐다.

다음은 이번 대회 대상 수상자 명단이다. 리코더합주 ▶ 청성초 ▶ 포천여중 ▶ 관악합주 ▶ 포천초 ▶ 포천일고 ▶ 현악합주 ▶ 포천초 ▶ 합창 ▶ 영복초 ▶ 포천여중 ▶ 동남고 ▶ 성악독창 ▶ 송우초 정진경 ▶ 경북중 김민주 ▶ 동남고 김유정 ▶ 현악독주 ▶ 관인초곽오영 ▶ 송우중 송재신 ▶ 포천일고 김동현 ▶ 리코더독주 ▶ 노곡초 이연숙 ▶ 포천여중 이은지 ▶ 피아노 독주 ▶ 추산초 김민석 ▶ 갈월중 김지은 ▶ 관인고 이혜슬 ▶ 관악독주 ▶ 포천초 이다은 ▶ 포천여중 강혜린 ▶ 송우고 윤별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지역주민 한마음으로 후원

경북중 사이클부 일일차집 개최

포천시 가산면 소재 경북중학교(교장 심동섭) 사이클부 후원회는 5월28일 오전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가산면 마린에서 1일 차집을 개최하고 후원금을 모금했다.

이날 1일 차집에는 경북중학교 심동섭 교장, 정종근 가산면 체육회장, 이관우 경북중학교 총동문회장, 류규원 경북중학교 운영위원장, 경북중학교 이미지 학부모회장, 연재순 가산면장과 심재호 가산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지역 유자들이 뜻을 모아 경북중학교 사이클부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 자리에서 현재 경북중학교에만 사이클부가 설치돼 있는 상급학교인 고등학교에도 사이클부를 설치해 연계성 있는 특기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한편, 가산면 지역발전후원회(회장 정삼용)는 매년 100만원씩 정기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후원회를 조직하여 공



적으로 활동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중학교 사이클부 후원회는 앞으로 1구좌에 1만원씩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북중학교 전 학부모회 임종연 회장(019-225-1969)이나 현 최건용 회장(010-3136-3628)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지성과 열정의 大學人 화합의 잔치

제3회 포천시대학종합문화축제 대진대 운동장

포천시에서는 5월16일 대진대학교 체육관과 대진대 운동장에서 '제3회 포천시 대학종합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축제는 박윤국 포천시장, 대진대 이천수 총장, 포천중문의대 김병수 총장, 경북대 전지용 부학장, 이만구 포천문화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대진대학교 · 포천중문의대대학 교 · 경북대학 재학생 1,000여명의 우렁찬 함성과 함께 시작된 행사는 그 간 대학종합문화축제의 간절적 개최에 노고한 대진대 김찬기 교수 및 학생 6인에 대한 포천시장의 표창수여에 이어 포천시 장 기념사, 김병수 포천중문의대

총장 축사, 경북대 전지용 부학장의 축사로 이어졌다.

포천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대학과 그 대학이 위치한 지역과의 발전은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공동의 발전을 위해 대학과 포천시간의 상호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를 지역에너지로 승화시키려는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포천시 3개 대학이 참여하는 '대학생 한마당 축제'를 통해 포천지역 대학생으로서의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높이자고 강조했다.

이날 우중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패러올림픽정신이 유감 없이 발휘된 축구경기에서는 대진대학교팀



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으며, 대학인 장기자랑에서는 3개 대학 10개 팀의 록그룹, 댄스팀, 치어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으로 끼와 열정

을 마음껏 발휘했고 경북대학 레전드 팀(작업치료과)의 치어 공연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하승훈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가족음악제 대상 신봉초 문효정 가족

포천교육청, 가족의 소중함 일깨우는 계기 마련

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 최길용)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가족간의 화목을 다지기 위해 '제1회 꿈과 사랑이 있는 포천 가족음악제'를 5월16일 오후2시 포천반월아트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가족음악제는 건전한 음악을 통한 명랑한 학교분위기를 조

성하고 가족간의 화합을 목적으로 학교대회, 4개 지역별 대회를 실시한 결과 우수한 10개 가족을 선발하여 포천교육청대회를 실시했으며 모든 가족팀의 노래와 연주 솜씨 및 가족간의 화합과 사랑이 넘

치는 가족음악제는 건전한 음악을 통한 명랑한 학교분위기를 조성

하고 가족간의 화합을 목적으로 학교대회, 4개 지역별 대회를 실시한 결과 우수한 10개 가족을 선발하여 포천교육청대회를 실시했으며 모든 가족팀의 노래와 연주 솜씨 및 가족간의 화합과 사랑이 넘치는 가족음악제가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신봉초등학교 문효정 가족의 소개 내용은 관중들에게 눈시울을 적시게 하고 감동을 선사했다.

문효정 가족은 혈연보다 더 진한 큰 아빠의 사랑으로 한 명, 두 명이 모여 가족이라는 큰 울타리가 된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사연을 동영상으로 소개되었는데 몇몇 관객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번 대회에서 대상은 가족의 화목과 다양한 활동을 선보인 신봉초 문효정 가족이 수상하였으며, 시랑상은 가산초 박성은 가족, 화목상은 내촌초 이해성 가족, 일등상 조유원 가족, 지현초 이승주 가족, 인기상은 영복초 박은경 가족, 행복상은 왕방초 이현근 가족, 청성초 정다현 가족, 하모니상은 김영취 가족, 영중초 이화영 가족이 수상했다.

최길용 교육장은 인사말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오늘 가족음악제를 계기로 더욱더 가족의 화합을 위해 모든 가정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선현의 숨결을 내 가슴에 담아

신규 및 전입교사 내 고장 문화탐방 연수

경기도포천교육청(교육장 최길용)은 교사로서 첫발을 내딛고 타 시군. 타 시도에서 전입하여 온 167명을 대상으로 포천의 선현의 얼을 느끼고 교육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5월29일, 30일 2차에 걸쳐 내 고장 문화탐방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신규교사 및 전입교사에게 포천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장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여 포천교육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포천향교, 충목단, 인령대교묘 및 신도비, 용연서원을 탐방했다.

또한 세계의 중심에 서는 변화와 혁신의 포천교육 마인드 역량강화를 위해 문화탐방 후 교육청의 장학진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졌는데 신규교사들이 현장에서의 애로점을 진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송우초등학교 이강송 교사는 “신규 및 전입교사 연수가 보통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번 연수는 온몸으로 선현의 얼을 느낄 수 있었다”며 “장학진과의 만남의 시간은 현장에서 교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최길용 교육장은 “만남의 시간에서 출신연설, 명현과 석학들이 많이 배출된 자랑스런 포천을 가슴에 품고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키워달라”고 당부했다.

양문택 경기도문화관광해설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열심히 선현의 얼을 느끼는 선생님들을 보니 포천교육의 미래는 밝다.”라고 평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함께 공부해요 》

朋友之交(붕우 지교) ㉒

(장유간의 질서를 밝힘)

益者三友 損者三友 友直 友諒 友多聞 이면 益矣 矣

익자삼우 손자삼우 우직 우량 우다문 이의

友便辟 하며 友柔善 하며 友便佞 이면 損矣 矣

우변벽 우선유 우변넌 손의

益: 더함의 損: 덜음 솟 어조사의 諒: 믿음(양) 便: 편함(양) 佞: 아첨(양) 便: 편함(양) 諒: 성실한 양, 便: 겉치레만 잘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

“유익한 벗이 세 가지 있고 해로운 벗이 세 가지가 있다. 하는 사이에 악(惡)에 물들기 쉽다. 벗을 사귀어서 크게 성공하고 잘못 사귀어서 몸을 망치는 일을 과거의 기록이나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다. 벗은 반드시 가려서 사귀어야 한다.

받아서 착한 사람이 되고 나쁜 사람을 사귀면 자신도 알지 못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문견 (聞見)이 많은 사람을 벗으로 삼으면 유익하고, 걸치레만 잘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 남에게 아첨을 잘하고 성실하지 못한 사람, 말만 잘하고 건문의 실지가 없는 사람을 벗으로 삼으면 해롭다.



문의 : 011-354-6485

양 주 수
본지 지문위원장



영중중학교 국제비즈니스미국영어

방문/출장

10. < 공장 방문 > : (2)

* 우리공장 방문을 환영 합니다. 공장장 아더사입니다

웰컴투어워팩토리.

아임 "아더사" 팩토리매니저

<Welcome to our factory, I'm Adisak, factory manager.>

* 첨 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류두?, 나이스미츄

<How do you do? Nice to meet you.>

* 여긴 같이 온 신사장입니다

디스즈 미스터 "신", 프래시텐 대표하우징

<This is Mr. Shin, president of Daeho housing.>

* 이 쪽으로 오십시오

디스웨이, 플리스

<This way, please.>

* 잘 지으셨네요, 위치도 좋구요

룩스베어워나이스, 쿠토케이션 투

<Looks very nice, and good location too.>

* 감사 합니다. 공단지역입니다

팩스, 위아인더 인다스트리얼에어리어

<Thanks, we're in the industrial area.>

* 그래서 공장들이 많군요

댓스 와이 더어어매니저팩토리, 아이씨

<That's why there's many factories, I see.>

문의 : 윤 종 성 (017-723-4977) cdyoon@nate.com